

# 믿음으로 보는 주님의 영광

요한복음 11:36~44

## 【인도자를 위한 예화】

한 성도의 자녀가 임신 7개월 만에 응급수술로 태어났습니다. 긴급히 꺼내진 아이는 심장이 정지되어 있었고, 호흡이 거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긴급 심폐 소생으로 겨우 살아났지만 곧장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한참 동안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머릿속 깊숙한 곳에서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손을 쓰기도 어려운 곳에 뇌출혈이 있었고, 이로 인해 뇌가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일 면회를 하며 아이를 응원했지만 밀려드는 절망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듣는 소식으로 희망을 찾기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그 성도는 '시와그림'의 <돌문을 열고 나오라>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내 이름 부르며 돌문을 열고 나오라 널 가둔 돌을 열리라 그 돌이 열리고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따라 나오라 일어나 걸어 나오라... 내가 갇혀진 어둠 속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내가 너를 살려 내리라..."

성도는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아이를 괴롭히던 뇌출혈이 멈추고 무사히 퇴원해 부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삶에서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든 찬양이나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 【배경 이해하기】

요한복음 2~11장에는 예수님의 사역 중 있었던 일곱 개의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표적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여 주는 사건들입니다. 처음 두 표적은 '가나'라는 장소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2:1~11; 4:46~54), 다음 두 사건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으며(6:1~13, 16~21), 나머지 두 사건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5:1~15; 9:1~41)입니다. 마지막 표적 11장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요한복음 5:28~29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 이면서,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42절). 그러나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계기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47~50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십자가 서사에서 빠질 수 없는 장면입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무덤 입구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지시에 마르다가 주저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33절).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고 안타까워하며 절규합니다(36~37절).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35절),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38절).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곧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펼쳐질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무덤의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현실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말씀하시며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부활의 권능은 믿음과 연결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부패가 진행되고 냄새가 밖으로 나고 있는 점은 단순히 죽어가는 가사(假死) 상태를 이용해 교묘한 방법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 적용과 나눔 I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된 일, 또는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영광과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주권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삶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그분 손안에서 해결됨을 시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환난과 어려움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 관찰과 묵상 II

**사람들이 무덤 입구의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나요?(41절)**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표적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둘째,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연합과 이에 대한 상호 이해는 감사가 무색할 만큼 완벽하기에 굳이 표현될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아버지의 들으심과 응답에 대한 감사를 기도의 언어로 표출하는 것은 둘러서 있는 유대인 '무리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더 커다란 배척을 당하시고, 죽임의 음모에 더욱 직접 노출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공개적이고 직접적 신적 권능을 기도로 드러내십니다.

## 적용과 나눔 II

**상황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나사로의 부활은 죽음 권세를 넘어서는 생명의 주권자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은 예수님의 겸손한 '기도'와 '믿음'의 원리 위에서 드러납니다. 부활의 표적이 나타나기까지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교정시키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신 후에 비로소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며, 상황의 극적 반전이 속히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온전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찾으시며, 이를 위한 기도에 시간을 더 들이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펼쳐질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속에서 일어난 것인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